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혜명양로원 침술 봉사팀

“침 놓고 뜸 뜨고 어르신 건강지킴이”

“매일 봉사활동 하러 다니다보니 이웃에서는 돈 벌러 다니는 줄 알고더라고요.” 혜명양로원(원장 현성)에서 올해로 9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수지침과 침술 봉사를 하고 있는 민귀남(55)씨가 던지는 말에 주위 어르신들도 박장대소한다.

2월 15일에도 양로원을 찾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태) 소속 혜명양로원 침술 봉사팀’은 항상 그렇게 어르신들과 즐거운 기운을 가득 주고받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팀은 양로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디가 어떻게 좋지 않은가를 살핀다. 어르신들은 주로 팔·다리 관절이나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그 통증부위에서 정성들여 침을 놓고 30분간 기다리고 난 후 침을 뺀 자리에서 다시 30분간은 뜸을 뜬다.

“아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팔

목이 시큰시큰 했는데 좋아졌대니까.” 봉사팀이 올 때 마다 침을 맞아 ‘모범 생활머니’로 불리는 이옥분(가명·85) 할머니는 봉사팀장 박경희(69)씨의 손에다 고맙다는 표시로 말린 당근과 호박을 잔뜩 쥐어준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침술의 특성상 봉사팀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을 쌓을 수 있게 했다. 박 팀장은 침술 봉사를 받기는 할머니들이 침술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야기 상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멋쩍게 웃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자원봉사처를 알려주는 곳이 많아요. 용기를 내서 한 번만 참여해보세요. 나누는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김강진 기자



2월 15일 침술봉사팀 박경희 팀장이 혜명 양로원 할머니에게 수지침 시술을 하고 있다.

■후원해 주세요- 혜명복지원 ‘희망의 집’

1982년 세워진 혜명복지원에는 혜명 양로원뿐만 아니라 노인인들을 위한 센터 ‘희망의 집’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의 집’은 98년 양로원 옆에 세워져 현재 48명이 입소해있는 주거 공간이다. 따로 운영진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원에서 양로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돌보다보니 세

제나 비누, 치약 등 소소한 생활물품이 모자랄 때가 많다. 혜명양로원 봉사팀장 박경희씨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복지원을 통해 생활품을 후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02)802-6765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단체 활동가들에게 쌀 지원

‘시민단체 전성시대’라는 요즘이지만, 정작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넉넉하지 못한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활동비를 ‘자체조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불교계 단체에서 활동하던 한 활동가는 결혼을 앞두고 그 단체를 떠났다.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급여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지원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마음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활동가 45명에게 1인당 80kg의 쌀을 지원한다.

조계사와 봉은사의 협찬을 받아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추천인의 추천사유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2월 14일~3월 4일까지 재가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로 하면 된다.

재가연대 45명에게 80kg씩 3월4일까지 신청 접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가연대는 지난해에도 시민사회활동가 24명에게 1인당 80kg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 (02)2278-3417, bsr@buddha21.org

유철주 기자

도와주세요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앓는 이종찬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종찬(25)씨.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이 씨에게는 2004년 초, 미약하게 느껴졌던 권철 통증이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의 시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2차 항암치료중인 이종찬씨는 3차 항암치료 후 ‘타간간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으면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치료비와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고생한 아이를 살리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온정을 호소했다. 후원문의: (02)734-8050(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봉사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을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헬스케어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봉사팀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소개한다.

♥ 나눔 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합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모신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전국 사찰서 온정의 손길 계속 이어져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이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스리랑카에 보낼 구호물품을 차에 싣고 기념촬영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남아시아를 덮친 지진해일 피해에 불자들의 단결된 힘이 계속 모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남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불교계에서만큼은 이들 국가 아픔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도 2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4119만9850원을 전달하며 “전국이 지진해일피해 돕기에 적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도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법장 스님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는 2월 13일 비제야사리 스리랑카 대사에게 구호성금 3만 3000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은 2월 16일까지 접수된 남아시아 구호 물품을 2월 26일 부산항을 통해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동우·유철주 기자

조계종에 지진·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2월 3~2월 16일)

박경희 10만원 영화사 113만원 신홍사본발사 5000만원 대흥사 본발사 2000만원 월경사 3999만5000원 지용스님 10만원 동인불교대학 100만원 이성욱 100만원 해원정사 1142만3100원 김귀자 5만원 노석사 100만원 중앙선도회 615만1000원 이근호 100만원 통도사 1억10만7000원(구룡사 3천만원 포함) 대원정사지장회 35만원 이경미 1만원 손문철 5만원 김상사청년회 15만1000원 성남불교사 100만원 서한수 3만원 강화사암연합 687만5870원 보덕사(현충)100만원 교동화개사 20만원 정동사 500만원 정명선(광주) 20만원 양영숙 10만원 의정부미특입 10만원 용화사 50만원 신주호 20만원 약사사 106만8000원 노경호 5만원 김기복 35만원 김숙자 5만원

도선사 3000만원 불광사(승파) 1197만3700원 화엄사 2000만원 8교구지자사(추기분) 150만원 송광사 2338만2080원 조영숙 10만원 창원봉림사 25만4400원 안양사불교연합회 200만원 안암동보타사 112만9000원 유인호 1만원 김수정 1만원 삼정사(정릉4동) 20만원 봉은사 3000만원 울산사원연합 500만원 충추천왕사산도일동 35만4000원 영동군사원연합회 50만원 범우회회장정명선스님 100만원 둔촌보성사 117만원 총 378,924,150원 조계종 재난구호 성금 총액(1월 5~2월 16일): 1,641,348,202원(ARS 1,079년 5,395,000원 환산)

매 순간 기도 하라

생활실천 기도도량 / 효행불교 · 선행불교

경기화정 광명사



광명사기도법회 안내

- 광명사 기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놓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 회주 활안 큰스님 법문 /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1시
- 자비참법기도 (5년 정진 중) 매주 화요일 광명사 동참
- 나한기도 (2년 정진 중) / 매주 금요일 광명사 동참

부처님을 따르고, 마음의 고통을 덜고,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광명사로 오십시오!

원하는 바 쪽 이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지 대덕



기도법사 보현

광명사에서는 5시 새벽 예불 종을 울려 경기 화정 일대의 모든 이들을 위한 화평과 행복을 만들어가며 정성으로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광명사는 초심자라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 기도도 보현법사님이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정성 기도로 이끌어 갑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고 祈禱 - 行 - 報施가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각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부처님 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진솔한 예불을 통해 지혜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심 불자라도 근기에 맞게 / 쉬운 한글 경전으로 / 발원 기도 원만 소원성취를 약속합니다.

방문아시는 모든 분들께 보현 기도법사님이 쓰신 「명상의 세계」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광명사 500나한 봉안 불사



◇ 지난 10개월간 130나한 봉안 (목아 박찬수님 작품) ◇

천작(天作)일까? 초인간상의 세계적인 위인상이요, 보살상이라, 화정 광명사에 나루신 5백나한 - 도심속의 나한도량으로 거듭나 근기와 정성에 따라 현세의 소원을 이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발원에 따라 엄청난 신통력을 보여 주십니다. 광명사 법



당을 다녀간 불자들이 줄지어 신비한 꿈을 꾸고 기도 성취하며 많은 분들의 소구소망 이루는 것은 모두가 광명사 나한님의 원력이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세계제일의 나한님을 친견하시고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